

지속가능·제품 혁신 통해 진화 중인 P&G



P&G가 제품 혁신부터 지속가능 혁신에 이르기까지 혁신의 방향을 확장하고 있다. 브라운 시리즈9 프로 스킨, 질레트랩스의 혁신 제품 체험을 위해 롯데마트와 함께 마련한 '질레트랩스X롯데마트 그루밍 맨 뷰티 클래스', 오톨비 클릭 칫솔. (왼쪽부터).



사진제공 | P&G·롯데마트

“면도기로 피부케어…우주용 세제 개발까지”

질레트, 온열 바·딥클렌징 바 눈길
브라운 프로케어헤드로 보습 효과
다우니, 찬물 용해력↑ 탄소배출↓
재활용 플라스틱 정화 기술도 개발

글로벌 생활용품 업체 P&G가 기업 철학인 ‘혁신’을 바탕으로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먼저 제품 혁신을 통해 고객 일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면도기 브랜드 질레트의 ‘질레트랩스 히트드 레이저’가 대표적이다. 50도와 43도 두 단계로 온도 조절이 가능한 온열 바를 탑재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면도에 최적화된 열감을 전달해 마치 스팀타월로 면도한 것 같은 상쾌함을 선사한다.

각질 관리와 깔끔한 면도를 한번에 해결해 주는 ‘질레트랩스 with 딥 클렌징 바’도 눈에 띈다. 피부에 쌓인 각질과 이물질이 깔끔한 면도를 방해한다는 점에 주목해 기존 면도기 헤드에 딥 클렌징 바를 적용했다. 딥 클렌징 바가 면도날이 닿기 전 피부에 남아있는 이물질과 각질을 제거해 한번의 면도만으로

쉽고 빠르게 깔끔한 얼굴을 완성할 수 있다.

전기면도기 브랜드 브라운은 하나의 기기로 면도와 피부 관리가 가능한 ‘브라운 시리즈9 프로 스킨’을 선보였다. 기존 모델 대비 30% 얇고 35% 넓어진 프로 블레이드로 최상의 절삭력을 자랑하는 ‘시리즈9 프로’와 피부 관리용 액세서리인 ‘프로 케어 헤드’를 함께 담았다. 프로 케어 헤드에는 ‘스킨 인퓨전 기술’을 적용해 분당 1만 번의 미세 진동을 일으켜 보습제의 유효 성분이 피부 깊숙이 흡수될 수 있도록 돕는다. 필요에 따라 헤드를 교체하며 면도 후 건조하고 예민해진 피부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회사 측은 “P&G의 면도기 브랜드는 면도를 넘어 스킨케어까지 도와주는 혁신을 통해 토탈 그루밍 솔루션을 선사하고 있다”고 했다.

●지속가능 혁신으로, 혁신의 의미 확장

최근에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품을 개발하며, 혁신의 방향을 확장하고 있다. 제품 혁신을 넘어 다음 세대를 위한 지속가능

성 혁신으로 나아가는 게 핵심이다.

“다우니 냄새 딥클린 세탁세제”가 대표적으로, 새로운 효소 성분을 포함해 찬물에도 빠르게 녹을 수 있도록 용해력을 높였다. 저온에서도 빨래가 가능하게 온수로 세탁했을 때보다 전기 사용량 및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다. 또 구강 관리 브랜드 오톨비가 리뉴얼 출시한 프리미엄 칫솔 ‘클릭’은 칫솔모 부분만 교체 가능하다. 필요에 따라 칫솔모만 교체하고, 칫솔 손잡이 부분은 재사용함으로써 환경 지속가능성에 기여한다.

플라스틱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기술 혁신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페플라스틱의 열악한 품질이 플라스틱 재활용에 방해 요소가 된다는 점에 착안해 재활용 플라스틱 정화 기술을 개발했다. 페플라스틱의 오염 물질을 제거해 재활용이 용이한 순도 높은 플라스틱으로 복원하는 기술을 말한다.

미국의 플라스틱 재활용 업체인 퓨어 사이클 테크놀로지나 해당 기술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해 고품질의 재활용 플라스틱이 관련 산업 전반에 상용화되도록 지원하고 있다.

P&G의 지속가능성 혁신은 지구 밖에

서도 이뤄진다. 수자원이 결여된 우주에 인간이 체류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자원 낭비가 필수적으로 수반된다. 실제로 우주인이 1년간 국제우주정거장(ISS)에서 체류하는 데 필요한 옷 무게는 68kg에 달하며, 이 과정에서 모인 옷은 전부 소각 폐기된다.

이러한 자원 낭비를 막기 위해 미국항공우주국(NASA)과 우주 협정을 맺고, 완전 분해 가능한 세제를 개발하고 있다. 해당 세제는 현재 ISS에 전달돼 성분 변화 및 성능을 시험 중에 있으며, 향후 시험 대상을 얼룩 제거 펜과 물티슈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렇게 개발된 제품군은 물이 부족한 지역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 궁극적으로 지구의 환경 보호에도 활용 가능할 전망이다.

회사 측은 “P&G는 ‘더 나은 삶을 위한 오늘’의 변화라는 미션 하에 고객 일상에 혁신을 견인해왔다”며 “향후 제품 및 지속가능성뿐 아니라 혁신의 방향을 다방면으로 확장해 고객에게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삶을 선사하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조항목 NS홈쇼핑 대표와 허경욱 소비자불만처리위원장(왼쪽부터 3·4번째) 등이 출범식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 NS홈쇼핑

NS홈쇼핑, ‘제2기 소비자불만처리위’ 출범

NS홈쇼핑이 최근 경기 성남 판교사옥에서 ‘제2기 소비자불만처리위원회’ 출범식을 열었다. 소비자불만처리위원회는 고객 불만 및 민원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불만처리 프로세스 수립 및 서비스 정책을 결정하는 기구다. 소비자중심경영을 통한 고객 만족을 높이기 위해 기획했다. 2기 위원회는 객관적인 시선으로 소비자 불만을 수용하고, 고객 눈높이에 맞는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했다. 위원장은 허경욱 성신여대 소비자생활문화산업학과 교수가 맡는다. 2년의 임기 동안 매 분기 1회 정기회의를 진행한다. 소비자 정책 의견 제시, 소비자 분쟁해결 및 보상처리절차, 소비자 불만의 타입에 따른 해결책 제시, 분쟁해결 및 보상에 관한 다양한 방향 제시 등의 역할을 한다. 조항목 NS홈쇼핑 대표는 “소비자불만처리위원회를 통해 더 높은 수준의 고객 만족을 추구하고, 고객 신뢰에 부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강원랜드, 4차 넥스트 유니콘 육성 기업 선정

강원랜드는 4차 넥스트 유니콘 프로젝트에 참여할 스타트업 3개를 선정했다. 올해는 총 65개 기업이 지원해 뉴로팩, 대단, 브이아이테크 등이 4차 넥스트 유니콘 프로젝트 기업으로 최종 선정됐다. 2019년부터 시작한 ‘넥스트 유니콘 프로젝트’는 중장기 청년기업 육성 프로젝트로 2025년까지 21개의 청년창업기업을 강원 남부 폐광 지역(태백 삼척 영월 정선)으로 유치해 기업 활동의 안정적 기반 마련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폐광지역 경제 활력을 견인하는 것이 목표다. 선발 기업에게는 기업 당 최대 10억 원의 지원금과 함께 정책자금 투융자 지원, 상생 프로그램 연계 등 각종 정책 혜택을 제공한다. 선발된 기업은 3년 이내에 본사나 공장 등을 폐광지역으로 이전 또는 신설해야 한다.

광동제약, 7년 연속 매출 1조 원 초과 달성

광동제약은 24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진행된 정기주주총회에서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액 1조4315억 원을 달성했다고 보고했다. 2021년 대비 7%, 개발기준으로는 약 3.1% 증가한 실적으로 연결기준 7년 연속 매출 1조 원을 넘었다. 광동제약은 이날 주주총회에서 박상영 부사장을 사내이사로, 엄신일 다앤뉴 부사장을 사외이사로 각각 재선임했다. 광동제약은 창립 60주년을 맞는 올해 수익중심 내실경영, 천연물사업 핵심역량 확보, 제품 마케팅 유통구조 혁신, 헬스케어 산업 신성장 동력 확보 등 실천과제를 발표했다.

바른세상병원, ‘팔꿈치 통증 엘보’ 건강강좌

보건복지부 지정 관절전문병원인 바른세상병원은 30일 원내 바른아트센터에서 ‘팔꿈치 통증, 엘보 제대로 알고 제대로 치료하자’라는 주제로 건강 강좌를 개최한다. 일반인 대상 강좌로 수족부클리닉 홍인태 원장(정형외과 전문)이 강의를 진행한다. 홍 원장은 강좌에서 팔꿈치 통증의 원인과 치료법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다. 접수는 사전예약으로 진행하고 마감일이 되지 않으면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바른세상병원은 매달 척추 및 관절 질환과 뇌신경질환 등을 주제로 건강 강좌를 진행하고 있다.

문의 | 신하늬 기자 mythuki@donga.com

“교육으로 더 나은 세상 만들 것”…고려대 사범대, ‘50주년 교우의 밤’ 성료

50주년 기념 ‘미래교육연구원’ 설립
이재연 회장 호 판 청해 교육상 신설

“50년을 기리며, 50년을 그리다”.
고려대 사범대의 설립 50주년을 기념하는 ‘사범대학 교우의 밤’ 행사가 24일 고려대 수당패럴티하우스에서 개최됐다.

행사는 김성일 사범대 학장의 환영사, 김미숙 사범대 교우회장의 답사, 사범대 소사 및 소개영상, 사범대 50주년 기념식 영상, 내빈소개, 사범대의 현황 및 미래비전 발표순으로 진행됐으며 중앙 아카펠라 동아리 로그스의 축하공연이 펼쳐졌다.

김성일 고려대 사범대 학장은 환영사에서 “올해는 고려대 사범대 설립 5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로 그동안 사범대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글로벌 시대를 이끌어갈 유연한 사고능력과 주체성을 갖춘 교사와 교육전문가들을 양성해 왔다”며 “사범대 50주년을 기념해 대한민국 교육의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할 ‘미래교육연구원’을 설립하고, ‘교육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KU 사범대학’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24일 고려대 수당패럴티하우스에서 열린 사범대 50주년 기념 ‘사범대학 교우의 밤’ 행사 참석자들이 50주년을 축하하며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범대는 이재연 명예인예우 회장의 호를 딴 청해(靑談) 교육상을 올해 신설해 매년 1학기 말에 시상한다. 이 상은 이 회장이 기탁한 1억 원의 기금으로 마련됐으며 중등교육 발전에 기여한 인물 및 기관을 대상으로 500만 원을 시상한다. 이 회장은 2017년부터 매년 2000만 원씩 총 1억 원을 고려대 사범대에 기부하는 등 교육사업가로써 교육자 양성 및 장학지원을 위해 고대와 깊은 인연을 맺어왔다.

김미숙(지리교육과) 제13대 고려대 사범대 교우회장은 “1973년 3개과로 시작했던 사범대가 8개과인 단과대학으로 우뚝



이재연 명예인예우 회장

섰고, 현재는 세계적인 사범대 단독건물인 운초관에서 후배들이 큰 꿈과 비전을 갖고 학업에 전념하고 있는 것을 보니 감개무량하다”고 했다.

이어 김 회장은 ▲고대 사대 슬로건 공모전 개최 ▲좋은 신입 사대생을 위한 제도(장학금 첼린지) ▲운동부 지원활동 강화 ▲사대 교우회의 활발한 활동을 통한 입지 강화 ▲자선기금 골프대회 개최 ▲사대 후배들을 위한 후원 활동(세터행사, 5월 축제 등) ▲교연전 무

료주점 개최 ▲사범대 교우회 50주년 행사 등 올해 교우회 주요 사업을 소개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박현숙 고려대 교수, 김종길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 이사, 이인철 스포츠동아 대표, 신규철 국동대 교수, 박범수 세화고 교장, 이경택 명덕고 교장, 김옥희 참요양병원 이사장, 최용석 중앙중 교장, 조돈현 SK SUNI 대표, 신재하 에이피알 부사장, 박승철 원수학연구소장 등 교우, 학교 관계자 70여 명이 참석해 사범대의 50주년을 축하했다.

양형모 기자 hmyang0307@donga.com